

SOCIETY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전남대 의예과 281점·조선대 의예과 279점

‘금타 광주공장 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9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참여한 이번 시민대책위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촉구하고 지역 고용 위기 대응에 나서고자 마련됐다.

시민대책위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 시민사회와 더불어 민주당·진보당 등 정당, 박근혜 광산갑 국회의원·전종덕 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등 정치권이 참여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사태로 2500여명의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재난 상황에서 침묵은 무능과 무책임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대주주인 더블스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정상화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금호타이어 사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민들과 연대하는 행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평 가채점 결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268점·광주과학기술원 263점

시교육청 진학팀 등 분석···7월9일 결과분석설명회

지난 4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대한 광주지역 가채점 결과 서울대는 인문계열 273점, 자연계열 271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인문계열 270점, 자연계열 263점 내외에서 지원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전남대 의예과 281점, 치의예과 277점, 조선대 의예과 279점, 치의예과 275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268점, 광주과학기술원(GIST)

263점, 광주교육대학교 231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전망이다.

9일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분석팀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가 광주지역 고3 6월 모의평가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능과 유사하게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국·수·탐 3개 영역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를 보면 서울대는 인문계열 273점 내외, 자연

계열 271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연계열은 서울대 응시기준(수학(미적분/기하)+과탐(2과목), I+II 조합은 서로 다른 분야의 과목)을 충족한 학생들을 표본으로 한 자료다.

또 고려대와 연세대는 인문계열 270점 내외, 자연계열 263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원가능 점수는 263점 내외, 광주교육대학교 231점 내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268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대 인문계열은 국어교육과 241점, 영어교육과 231점, 경영학부 230점, 행정학과 226점, 정치외교학과 225점, 국어국문학과 221점이며,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218점 내외로 예측된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281점, 치의예과

277점, 약학부 274점, 수의예과 273점, 전기공학과 250점, 수학과 211점, 간호학과 238점으로, 자연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수학 지정(미적분/기하) 학과는 206점, 수학 미지정(미적분/기하/확률과 통계 모두 지원 가능) 학과는 218점 내외로 예측된다. (단, 의료보건 관련 학과는 지역인재전형 기준으로 배치)

조선대는 의예과 279점, 치의예과 275점, 약학과 273점, 간호학과 222점 내외로 예상된다. (지역인재전형 기준으로 배치) 정시 선발 비율이 1.6%로 정시 지원 시 이월 인원 확인이 중요하다.

시교육청 진학팀 관계자는 “배치기준 자료의 학과 및 배치군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한 것이며 수시 이월인원 발표 시 확정 인원이 변경될 수 있다. 원점수에 따른 단순 지원 가능 기준

점수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치기준 점수는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국·수·탐 원점수 300점 기준이므로 영어 등급 점수에 따라 변동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실제점 분석자료가 나오면 대학별 환산점수로 계산해 유효리 정도를 판단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모의평가 결과는 오는 7월1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시교육청은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분석설명회를 오는 11일 오후 7시 광주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실제점 결과와 점수가 나오면, 분석해 7월9일 오후 7시 광주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결과분석설명회를 연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 수능성적 하위권 줄고 상위권 늘었다

전남지역 학생들의 수능 성적(국·영·수)이 4년 전에 비해 하위권은 줄고 상위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은 9일 2025 수능 성적 분석 결과, 도내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평균 대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와 2021학년도 수능 성적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국어 영역은 2021학년도보다 하위권(7~9등급)이 6.9%포인트

줄었으며 상위권(1~3등급)은 0.5%포인트 늘었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전국 대도시와 읍면지역 재학생 평균 표준점수 격차가 큰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도시 재학생 평균 표준점수는 국어 98.6점·수학 98.8점이며, 읍면지역 재학생은 국어 92.9점·수학 93.6점으로 지역별 차이가 컸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희망여름 착! 착! 착! 나눔 캠페인 9일 광주 서구청 광장에서 열린 ‘희망여름, 착! 착! 착! 기획사업 및 나눔캠페인’에 참석한 김기강 서구청장과 이기영 배우 등 참석자들이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 될 삼계탕, 전복죽 등 여름나기 키트를 포장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광주시교육청 기금 ‘바닥’…3년 새 77% 급감

중앙정부·지자체 이전수입 대폭 감소 영향…“전국적 현상”

3년 전 6500억원에 달했던 광주시교육청 적립 기금 규모가 1400억원대로 크게 줄어 비상이 걸렸다.

그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오는 이전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시교육청의 기금 사용이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9일 광주시의회의 2024회계연도 광주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3가지 기금을 운용 중이다.

기금 3종류를 모두 합한 올해 말 예상되는 기금 규모는 1463억원으로, 전년도 3100억원 대비 5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247억원에서 1293억원으로 43%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836억원에서 153억원으로 무려

82%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도 16억2000만원에서 15억8000만원으로 줄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적인 기금 감소는 시교육청 세입 부족분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내 써야 하는 상황 탓이다.

교육청 예산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주는 이전수입이 절대적인데, 이것이 크게 감소하면서 교육청은 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올해도 시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9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7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만 해도 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461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19억원 등으로 총기금액이 최대 6493억원까지 적립했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시교육청 기금이 1463억원으로 무려 77%나 줄어든 것이다.

시의회는 국내외 경기 악화와 고교 무상교육비 부담 등으로 시교육청 기금이 가까운 장래에 유령무실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학교 시설 사업은 물론 교육력 제고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은 이전수입 감소와 기금 고갈 상황에 대비한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추가경정 예산 등을 통해 기금을 적립하는 한편 내년 사업 예산 편성에도 기금 상황을 반영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예산 이전수입 부족으로 인한 기금 고갈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비슷하게 겪고 있다”며 “필수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동구, 동명동 상권 활성화와 사업 추진

‘동네 상권 발전소’ 진행

광주 동구가 침체된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9일 동구에 따르면 동명동에서 상인 중심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네 상권 발전소’ 사업이 진행된다.

동구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동네 상권 발전소 지원’ 사업에 광주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운영 주체인 ㈜광주,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함께 동명동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동구는 동명동의 로컬상인·창업가·주민 등이 협업해 역량 있는 골목상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동명동만의 독자적인 상권 브랜드 확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골목형상점가 지정 준비를 통해 상권 정체성을 확립하며 상권 거버넌스의 기초를 다질 예정이다.

7월에는 동명 상권 청년 창업가와 주민

의 협업 모델인 골목 리더 ‘동명 크루’ 양성을 추진하며 상인 역량을 끌어 올린다.

이외에도 ‘동명 브랜드’ 골목상권 공동 마케팅을 동시에 추진, 상권 브랜드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임택 청장은 “동명동은 혼자가 아닌 함께 상생하는 골목상권을 만들어가는 품고 델이 되고 있다”면서 “로컬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광주 대표 상권인 동명동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명동은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 우수상권 육성 고도화 사업에 선정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사람과도시

크고 자연환경 오늘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믿음 주고 사랑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부분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로드킬 디자인난간, 알루미늄 데크, 신축이음장치, 교량점검로, 교량확장 외

환경사업부분

빛물저류 침투조, 식생수로, 비점오염저감 시설, 잔디식생포장공법, 우수분리장치 외

노약자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881등급 보도돌 방호 울타리(설치 의무화)
기초공사가 필요 없어 공사비 절감
보행자를 방호울타리 경유(기준안락)
보도폭 확보 용이

빗물 저류 침투조

· 블록형 결합구조로 시공이 간단
· T·25에 대응한 고강도 제품
· 공극률 95% 이상
· RoHS 기준, 토양오염원경건조, 내약품성기준 모두 만족

강제 롤러 가드레일

개방형 가드레일

교량 난간

디자인 난간

목재형 난간

알루미늄 데크

식생포장

(주)한길산업

www.hngroad.co.kr

본 사 1(광주)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공단길 35 Tel.061)324-9123
사무소 2(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신대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메스(US)로 172 한림유연타워10층 1015호 Tel.031)476-8504